

[목회자 모임]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2020. 3. 20. 이현래 목사

지난번에 요한복음 9장에서 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일이 많다. 지금 우리가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해석하는 수도 있고, 사건과는 거리가 멀게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른 한 편에서는 그것은 성경을 너무 많이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거기에도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것이 꼭 이런 사건이겠는가? 어떤 다른 사건인데 그때 당시의 언어로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애기를 낳고 나면 금줄을 친다. 새끼에 사내아이를 낳으면 고추를 넣어서 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숯 덩어리를 넣었다고 한다.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방문하고 가고 나니까 갑자기 열이 났다. 사람들은 삼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산과적 신, 삼신이 노해서 그런 것이므로 금줄을 치고 외부인이 못 들어오도록 막았던 것이다.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금줄을 쳐놓았다. 세균이 침범한 것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삼신이 노해서 그런 것이니까 함부로 오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던 것이다.

성경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형상 자체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용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시대에는 그렇게 쓰고, 저 시대에는 저렇게 쓰고, 이것은 쓰실 분

의 자유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단 눈이 떠진 것은 사실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축하를 해야 할 그런 일이지 그것을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고 지식이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다.

내가 각북에 있을 때의 경험이다. 서울에서 친구 두 명이 위문 차 왔다.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나서 왔었다.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의사였다. 그 의사는 전혀 교회를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다. 그런데 들으니까 천주교회를 나간다고 했다. 나는 그것만이라도 반가웠다.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나는 아주 반가운 것이다.

그가 월남전에 군의관으로 갔었는데 그때 내가 포켓용 성경 한 권을 보냈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월남에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그 책을 주머니에 넣고 가끔 읽어 봤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깐 굉장히 마음이 기뻐다. 그 뒤로 딸아이가 천주교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결혼할 때 가니까 명동 성당인데 앞에 부인과 둘이 앉아서 성호를 긋고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생각하고 놀랐다.

그 사람이 위문 차 왔다. 목사인 친구는 천주교 다닌다고 안 좋게 생각했다. 그때 내가 ‘이 사람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자만 아는 것도 대단한 것이네. 우리가 이것을 축하하고 반가워해야지 천주교 다니니 어디 다니니 할 일이 아닐세.’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천주교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는 천주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반가워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신교를 잘 다니던 사람이 천주교를 갔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지만 이방인이고 전혀 하나님의 ‘하’자도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성당에 앉아서 성호를 긋고 있으니깐 그것도 나는 신기하게 생각이 들고 반가웠다.

그 뒤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 봉사 기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봉사를

하였다.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월급은 조금 주겠지만 봉사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였다. 내가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한 번 찾아왔다.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까 제주도까지 피정을 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참 세상에 별 일이 다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부인에게 천주교를 믿느냐고 하니 ‘아니요, 나는 그런 것 몰라요.’라고 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딸이 가보자고 해서 가봤더니 괜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괜찮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나는 그 사람에게 기쁜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장님을 보면서 좌우지간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됐든지 안 됐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이냐 인간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못 떴던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무당이 눈을 뜨게 했더라도 눈을 뜨게 했다면 우리가 축하할 일이 아닌가? 내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무당이 했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겠는가? 무당이라도 눈만 뜨게 해 준다면 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마음이다. 꼭 기독교를 믿어서만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라도 눈을 뜨게만 해준다면 그 사람이 장님에게는 메시아고 구세주가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

오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9:5)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 이까.”**(요9:2)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9:3)고 대답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하기가 쉬운 말이 아니다. 말을 하지만 언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것인가?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뜨게 해주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9:5)고 하고 눈을 뜨게 해 주셨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한 번도 눈을 뜬 일이 없다. 본 일이 없다.

이것을 알아보려고 안과 의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소아과 의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눈은 있는데 어떤 이유로 못 보게 된 것이라고 했다. 눈망울, 안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 데도 못 본다고 했다. 이 사람은 빛이 없어서 못

본 것도 아니고, 눈알이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다. 형체는 있지만 신경이 전달 안 되었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보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육신적으로 눈이 열린 것도 큰 은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다. 세상에는 이 사람처럼 눈이 없어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데 이 사람을 장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 보는데 만물을 보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못 본다.

로마서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롬1:20)는 말이 있다. 이것은 자연 계시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인데 핑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핑계하는 짓이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많지 않느냐? 자연을 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알고 보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것을 보고서도 못 보는 것이 사람이다.

내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생각나서 몇 년 동안 방황한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가려니까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뭘 하러 교회에 가는가?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방황을 하면서 질문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시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본 것이다.

나는 20대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그때 나는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균이 없어졌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결핵균이라는 균이 약을 안 썼는데도 두 달 만에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 약을 써도 1년 이상을 써야 되는 것이다. 요

좀 새로운 약이 나왔어도 결핵균이 발견되었으면 1년을 써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아니었다. 약이 있었기는 있었지만 세 가지 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집에서 다 써 버리고 갔으니까 더 쓸 약이 없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만 했는데, 두 달 후에 검사를 하니깐 균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두 번 세 번 다시 검사를 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퇴원하라고 했다. 여기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내가 어지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다고 생각할 것인데, 나는 이상하게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내가 신학교를 오기 바로 전에 친구가 편지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다. 네가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해라. 그러면 내가 길을 주선하겠다는 이런 편지가 온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었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드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둔한 사람인지 또 내가 교회를 다니기를 자유주의적인 교회를 다녔다. 기장교회여서 그런 관념이 없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 만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못 들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좌우간에 그 친구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말이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 손에 쥐어 주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내 몸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 주었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사도가 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다. 장님의 눈을 열어서 사물을 보게 했으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신다는 이 말이다. 태양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말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분명히 두 달 만에 결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방향을 했겠는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보았다. 기독교 장로교를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다. 설교 속에도 없고, 그런 것에 치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교리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도 사실 눈이 없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내 체험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주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주셨다는 말이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은 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이 생긴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2:7)라고 말한다. 그런데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세상에는 다 귀가 있는데, 어떤 말씀은 못 알아듣는다.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조선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상한 일이다.

요한이 이 말을 굳이 꼭 써놓은 이유는 처음에 눈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써놓고, 요한이 다시 세상의 빛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마13:15, 요 12:40, 행28:27)라는 말이 성경에 나온다. 사람이 다 그렇다. 누구나 다 보는 것이 아니다. 볼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되며,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일을 직접 봐도 안 된다. 귀로 들어도 안 된다. 눈으로 봐도 안 되는 사람이 귀로 듣는다고 알겠는가?

영어에 See라는 말이 여러 면으로 쓰인다. ‘본다’도 되고 ‘안다’도 되는 것인데 보는 것은 결국 알기 위한 것이다. 눈으로 본다고 해도 모르면 본 것이 아니다. 당달봉사라고 말할 때, 눈으로 뻔히 보는 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사람을 당달 봉사라고 한다. 청맹이다.

사도 바울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눈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냥 안 것이 아니다. 눈을 열어주었다고도 하고, 눈이 되어 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눈이 열리면, 또 어떤 눈이 있으면, 못 보던 것을 본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1:1)고 했다. 눈이 없어서 못 보던 사람인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한다.

이 경험된 사실을 전하려고 이 기록을 썼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요한복음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썼다. 그냥 역사적인 기록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변화를 보이려고 이런 사건들을 선택했다. 자기 안에서 경험을 가지고 쓴 말이다.

만물은 태양이 빛을 비춰주면 자기의 눈만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하게 어떤 빛이 와야 이것을 볼 수 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1:3)하는 빛은 이런 빛을 말한다. 그래서 이 빛이 와야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 비춰주심으로 인해서만 나는 볼 수 있다.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3년 이상 살았다. 그분을 여러 가지 면으로 다 보았다. 잠도 같이 자고, 음식도 같이 먹어 보고, 이적을 행할 때도 같이 있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더 잘 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분들만큼 예수를 친근하게 본 사람들은 없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를 버렸던가? 그렇게 확실히 봤는데 왜 그랬을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좋았겠다.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쉽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아니다. 직접 봤어도 안 된다. 같이 3년 반을 살았어도 안 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봤는데도 왜 버렸는가? 그들은 그를 보면서 저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본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렇지 않은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가? 어떻게 풍량이 잠잠해지는가?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가? 어떻게 오병이어서 5천명이 먹고도 부스러기가 열 두 광주리나 남는가?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고정 되었는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신이라는 말이 아닌가? 저분은 못하는 것이 없겠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따라 다녔더라도 그 이상 어떻게 알겠는가? 분명히 자기들과 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내려오지 못한 것이면 내려오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려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이 말도 안 한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않은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나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 한 번 내려와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도 없다.

제자들에게 박혀 있는 것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딱 박혀 있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하겠는가? 그런데 못 내려오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도 못 내려오니까 말이다. 그때 내가 봤던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저 사람은 누구인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왜 모른다고 했는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서 당하는 일을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얼굴에 홍포를 씌워놓고 때리는 놈도 있고 꼬집는 놈도 있었다. 그러면서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 맞춰보라고 조롱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네가 말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다. 이것이 역장이 무너질 일이 아닌가? 이것이 신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대답인가? 하나님의 아들, 신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왜 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으니

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느냐는 것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도 안 그럴겠는가? 우리도 똑같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모른다. 저 사람을 모른다.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다. 결단코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다.

이것을 베드로가 회개한줄 알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분통이 터져서 운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알았던 사람은 누구고, 지금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가 세 번이나 부인할 줄 어찌 알고 이야기했느냐는 것이다.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울지 않고 견디겠는가?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통곡한 것이다. 회개했으면 다시 돌아서 들어올 사람이다. 뛰어 들어와서 같이 죽자고 할 사람인데, 전혀 그렇게 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아주 진실하다. 아주 진실하게 써진 것이지 꾸며 쓴 것이 없다. 우리가 해봐도 똑같다. 우리라고 안 그럴겠는가? 당연히 예수는 내려온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을 했던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저분이 그냥 저렇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다. 안 그랬으면 실망할 일이 없다.

사람이 총 맞아 죽은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죽어?’ 하는 사람은 없다. ‘저 사람 왜 죽었지?’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전에 6.25때 총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한 번 본적이 있다. 총알 두 방을 맞았는데 한방에 죽었다. 한방은 관통을 했고, 한방은 가슴에 박혀 있었다. 박혀있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관통한 것 때문에 죽었다. 그 콩알만 한 것이 사람을 죽인다.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죽었지?’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이고 일본에서 명치대학을 졸업한 분이었는데, 6.25때 잘못해서 죽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것이 이상해진 것이다. 보통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다.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여러 스승이 있었다. 공자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많이 있었다. 그런 분의 제자들 중에 존경하던 스승이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옥에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사람도 없지만 존경하던 스승을 제자들 중에 배신했다는 말도 없다. 그런데 예수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 그 이유가 있다. 공자님 제자들이 공자님 배신할 이유가 있는가?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배신할 이유가 있는가? 없다.

그런데 예수에게만 배신자가 나왔다. 왜 그럴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는가? 예수께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예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지. 못 내려왔다고? 아니 저런 소리가 어디 있냐? 그것은 못 내려온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으면 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러면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를 믿어서 뭘 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믿어서 뭐 하겠는가? 그 이름으로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못 내려왔다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은 것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다.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뭐가 다른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왜 그들이 버리고 갔겠는가? 만일 지금 사람들처럼 만일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했다면 왜 달아나겠는가? 우리 때문에 안 뛰어내린 것이다.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안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울어야지 거기서 모른다고 도망을 치겠는가?

그들은 그들이 본 예수가 맞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본 예수가 맞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본 것이 맞다. 그들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주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에서 볼 때, 세상에서 하나님은 물론 그가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이 맞는 말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3:10~12)고 한다.

얼마나 찾는 사람이 많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 바울시대만 없었고 지금은 있는가? 그렇지 않다. 똑같은 일이다. 왜 그런가? 왜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동산 이후의 아담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둠이다. 장님이다. 볼 수가 없다. 동산 안에서 봤지만 동산 밖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세계에서는 누구나 못 보는 것이다. 깜깜한 밤에 무엇을 보겠는가?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밤이 깜깜해버리면 다 똑같다. 눈을 크게 뜨나 적게 뜨나 똑같다. 깜깜한 칠혹 같은 어둠에 가보면 처음에 눈을 크게 떠보지만 떠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리 크게 떠도 안보이니까 차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낫다.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 다른 것은 다 본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깜깜하다. 깜깜하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가인과 아벨이 왜 제물을 가지고 왔겠는가? 깜깜하니까 좀 교통을 해보려고 좀 알아보려고 제사를 드린 것이지 그냥 왔겠는가? 동산 안에서는 아담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말이 없다.

아담은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동산밖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안보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 보자는 것이다.

원시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믿는 신과 관계를 가질 때는 이런 제물을 드렸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다. 우리 조상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다.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은 다 응답한다는 것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사상이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 공부하기 전에는 다 똑같다.

아담의 세계 안에는 다른 것은 다 보는데 다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깜깜해져버렸다. 이것이 동산 밖의 세계이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3:22) 그래서 내쫓았다는 것이다. 영생을 못하도록 다음 위해서 내쫓았다.

그러면 영생을 하지 못하도록 내쫓았는데 보이겠는가? 관계가 되겠는가? 아무 관계도 안 된다. 아무 관계도 안 된다. 그 후로 사람이 만든 것은 전부 다 어떤 종교가 되어 버린다. 이방인의 종교나 마찬가지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한다. 그것이 종교이다. 만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종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낮이 열두 시간(열두시)이 아니냐.**”(요11:9) 정오가 아니냐? 이렇게 밝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요11:9)라고 말씀하셨다. 낮에 다니면 발이 미끄러지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밤중이었다. 밤중이라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은 물론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 깜깜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모두 밤중이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정오라는 것이다. 자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대낮같은 천지에 왜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다.

이것은 요한 자신이 자신의 경험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이런 일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 누구나 그런 일을 보면 이것은 신이 한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는 영문과 교수 한 분이 있다. 학교 다닐 때 나에게 한번 만나자고 했다. 그는 무신론자이고 문학을 하던 사람인데 자기 간증을 하였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왜 믿게 되었는가? 부인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 옆에 있는 모 교회에서 와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매일 출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오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해서 오니까 아내가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무신론자에게도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처음에 목회하러 나가서 헛갈린 것이 그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전도하기가 너무 쉽다. 문학하는 사람들은 정말 뻔뻔하다. 철학하는 사람들보다 더 하다. 그는 내가 전도사인줄 알고 그 간증을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면 믿지 않겠는가? 자기 앞에서 이런 이적이 일어나면 나는 몰라,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령 씨가 교회를 다닌다. 딸이 무슨 병이 걸렸는데 살지는 못했는데 그때 교회에 연결이 되어 교회를 나가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한다. 왜? 뭔가를 봤다. 기적을 봤다. 그러면 믿지 않을 수 없다. 전도 백 마디 천 마디 하는 것보다 이런 기적을 보이면 끝난다. 하나님 믿으라고 백 마디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일은 신이 아니면 안 된다, 신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단정된 관념이 있다.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을 두고도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눈이 열린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니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묻는다. 이것이 당신 아들이 맞느냐고 묻는다. 맞다고 해도 또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왜 이것을 못 믿느냐? 본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예수는 신으로서 이런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냐? 여기서 문제가 된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 문제가 된다. 신으로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 우리와 관계가 없어진다. 우리 병은 고쳐줄 수 있지만 내가 그분 안에서 구속이 되지 못한다. 나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행했다면 또 신앙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까지도 문제이다. 지금도 기독교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닌데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신은 분명히 아니다. 나는 어떤 일로도 사람은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인가?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이 지어졌다.

형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말고 같은 말이다. 우상을 보고 왜 믿지 않는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저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또 말을 못한다. 우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사람도 하나님 관계에서는 형상이다. 이 형상은 평소에는 그냥 형상이다. 그런데 만일 그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다면, 그분이 쓰신다면, 왜 형상을 만들어 놓았겠는가? 자기가 쓰시려고 만들었다. 자기가 형상이 없는 분이니까 형상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다. 존재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맞다.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형상으로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 형상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함께 하시면, 실재가 함께 그 안에 있으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형상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에 가면 흙이 나온다. 그런데 흙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씨가 들어오면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형상이다.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1:28) 이것을 형상 그 자체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할 수가 없다. 형상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할 수가 없다.

200km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놓았다. 자동차가 스스로 달려가겠는가? 1000km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어 놓았다. 스스로 날아가겠는가? 보통 이륙할 때 속도가 약 300km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공중에 뜨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꿈쩍도 못한다. 그것이 형상이다.

흙은 밭이 될 수 있지만 농부가 없으면 그냥 흙이다. 사람은 분명히 형상으로 지었다고 한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형상이다. 흙은 스스로 농작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런데 형상이기 때문에 씨가 들어오면 열매를 만들어 낸다.

예수님이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5:30)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형상이라는 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느냐고 하니 하는 말이다.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즘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 바울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확실한 말을 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히1:3) 이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말을 하겠는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은 자신은 형상이라는 말이다.

그리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6:5) 우리 때문에 한 말이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네가 나의 형상이 되면, 그렇게 한다는 말이 된다.

흙은 씨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렇지만 흙은 생명이 없다. 콩 하나를 심었는데 콩 하나만 열리는 법은 절대 없다. 콩 나무 하나에 100개도 열린다. 나무 열매 맺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 감나무를 심어 놓으면 처음에 열매 맺을 때는 2~3개 밖에 열리지 않는다. 다음에는 30개 40개가 열린다. 그 다음에는 300개가 열린다. 그 다음에는 1000개 이상 열린다. 흙이라는 것은 신기한 것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내는가? 여자가 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다. 남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남자가 무슨 수로 아기를 만들어 내는가?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온 씨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다.

사람은 자체로는 흙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하는 것이다. 한개 심어서 한 개 나면 언제 증인이 되겠는가? 콩 하나를 심었더니 다음에 콩 하나가 나왔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겠는가?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5) 이것이 요즘 번역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모양으로’가 맞다.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은 모양으로까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희망이다.

빛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물의 표면을 보는 빛도 있고, 이면을 보고 아는 빛도 있다. 보는 것은 알기 위한 것이다. X-ray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사람의 뼈를 보게 하기 위해 사진 찍는다. 빛이 여러 가지이다.

보고도 알지 못하면 보지 않은 것과 같다. 보기는 봤는데 알지 못하면 안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인식하는 그 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인식론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반대로 알면 또 모든 것을 다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장님들이 어디 갔다 오면 꼭 본 것처럼 말한다. 내가 어디 가봤더니, 어느 잔치 집에 가봤더니, 참 잘 차렸더라고 한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먹어보고 한 말이다. 내가 가봤더니, 한다. 장님이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 좀 우습다.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는 것이다. 아니까 본 것이다.

그런데 보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잔치 집에 갔는데 가서 보기는 봤다. 그런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동네잔치 집에 갔다 오시면 항상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돼지고기 밖에 못 드시니까 다른 고기는 잘 못 드신다. 돼지고기 있는 집은 괜찮고, 돼지고기 없는 집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다. 갔다 오시고 나면 늘 먹을 것도 없더라고 하셨다.

안다와 본다는 같은 것이다. 본다는 밖에 있는 것이고, 안다는 속에 있는 것이

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빛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가? 이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이 되시고, 또 보게 하는 빛이 되시는가?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알아진다. 사람의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알아진다. 사람의 위치를 떠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위치를 떠나면 눈에 보여주어도 안 보이는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자기는 베냐민 지파고 열심히는 뭐고 다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못 봤다.

왜 예수를 꼭 알아야 되는가? 그를 알아야 영생이 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한다. 어떤 빛으로 어떻게 알아야 보이는가? 내가 예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라고 알면 보이는가? 그분은 참 충성스러운 분이라고 알면 보이는가? 어느 정도는 보이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그와 연합된 자리에서만 나는 그의 눈을 가질 수 있다. 연합 안에서 그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죽음에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부활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부활은 새 생명이다. 새 생명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졌다는 그 말이다. 새 생명 안에서는 같은 귀를 가졌고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다.

왜 하나님이 동산에서 쫓아냈는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쫓아냈다. 위치를 이탈하면 다르게 보인다. 보이기를 다르게 보인다. 왜곡된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서 왜곡되어 있는가?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기는 정말로 옳게 알려고 노력해도 왜곡되어 있다. 열심히 믿는데도 왜곡되어 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했으면 알아야지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7:14)고 했다. 그런데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아주 또 넓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문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따로 없다. 다 길이다. 길바닥이 정

금으로 된 길이다. 따로 이것은 길이고 이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 그 안에서는 없다.

예수를 바로 알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분의 참 위치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면 우리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 인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치는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는 위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위치고, 거역하는 자가 충신이 되는 위치다.

가장 높은 자가 반역을 하면 그 반역은 엄청나다. 영의정이 반역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사람은 영의정과 같은 위치이다. 왕궁으로 생각하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니까 영의정과 같은 위치이다. 사람이 반역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될 때까지 에덴은 열리지 않는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발전 판이다. 에덴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열려질 동산이다. 그 동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어린양, 성령과 신부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생명 강물이 있고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저주가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가능하다.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부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를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전해놓으면 저절로 안다.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듣는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열려버린다. 따로따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한 눈에 다 열려버린다. 불교 용어로 하면 돈오돈수다. 한꺼번에 다 깨달아진다. 장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다.

감사합니다.